

# 한·EU FTA 10주년 성과 평가 및 시사점

**조동희**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장  
dhjoe@kiep.go.kr

**김종덕**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  
jongduk.kim@kiep.go.kr

**장영욱**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 
유럽팀 부연구위원  
yojang@kiep.go.kr

**오태현**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 
유럽팀 선임연구원  
asroc101@kiep.go.kr

**이현진**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 
유럽팀 전문연구원  
hjeanlee@kiep.go.kr

**정민철**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 
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 
mcchung@kiep.go.kr

**윤형준**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 
유럽팀 연구원  
hjyoon@kiep.go.kr

**강유덕** 한국외국어대학교 Language and Trade 학부  
교수  
ydkang@hufs.ac.kr



## 차 례

1. 연구의 배경 및 목적
2. 조사 및 분석 결과
3. 정책 제언

## 주요 내용

- ▶ 한·EU FTA 발효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의의를 돌아보고, 한·EU FTA의 영향을 무역, 투자, 서비스, 대EU 진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, 이를 바탕으로 한·EU FTA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
  - 2011년 발효된 한·EU FTA는 한국이 대규모 교역상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자, EU가 추진한 ‘차세대 FTA(Next Generation FTA)’의 첫 사례
- ▶ 실증분석 결과, 한·EU FTA는 한국 기업의 EU 진출전략을 다변화한 것으로 평가됨.
  - FTA 전에는 직접 수출 위주였으나, FTA 이후 상대적으로 생산비용이 낮은 중동부 유럽을 중심으로 현지 생산 활성화
  - 이로 인해 한국 기업에 대한 EU 내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시장점유율 확대에 이어진 것으로 평가됨.
- ▶ 자동차 산업,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, 반도체 산업, 의료용품 산업 등은 한·EU FTA 발효 10년간 양측의 경제가 더 깊게 연계되었음을 보여줌.
  - 자동차 산업에서 산업 내 무역이 활성화되었고,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에서 한국은 EU의 기후변화 대응과 생산 역량 확충에 기여
  -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은 EU를 통해 공급망을 다변화
  - EU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물품 수요 급증에 한국이 발 빠르게 대응하여 EU의 방역에 기여
- ▶ 한·EU 경제협력 강화 유망 분야로 수소경제, 데이터 규제 협력, 스타트업 지원, 시청각물 공동제작 등을 꼽을 수 있음.
  - 이러한 분야의 협력 강화는 양측이 공히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경제적 도전에 대한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## 1. 연구의 배경 및 목적

### ● 2011년 발효된 한·EU FTA가 2021년으로 10주년을 맞이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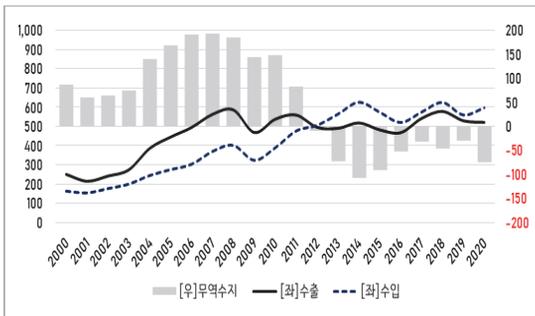
- 한·EU FTA는 한국이 대규모 교역상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자, EU가 추진한 ‘차세대 FTA(Next Generation FTA)’의 첫 사례

### ● 한·EU FTA 발효 후, 한·EU 간 교역 양상이 큰 변화를 보임.

- 한·EU FTA 발효 후 대EU 수출은 정체된 반면 수입은 증가세
  - 이러한 특징은 FTA가 발효된 직후이자 유럽 재정위기가 본격화된 2011~13년 가장 두드러짐.
- FTA 발효 후 중동부 유럽과 교역 증가가 뚜렷
- 대EU 주요 수출산업 중 전자기기, 자동차·수송기기는 FTA 발효 후 수출이 정체된 반면, 화학·플라스틱·고무, 철강제품, 석유제품 등은 수출 증가
- 대EU 수출과 수입 모두 FTA 발효 후 다양성 확대

그림 1. 한·EU 상품무역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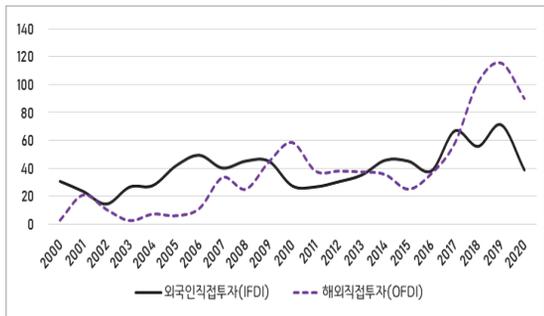
(단위: 억 달러)



자료: 한국무역통계진흥원 TRASS.

그림 2. 한·EU 간 FDI 추이

(단위: 억 달러)



자료: 외국인직접투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, 해외직접투자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.

### ● EU는 한국에 유입된 해외직접투자에서 약 14%(2위)를 차지하고, 한국이 투자한 외국인직접투자에서 41%(1위)를 차지하는 주요 투자상대로, FTA 발효 전에는 EU에서 한국으로 유입된 금액이 더 컸으나, 발효 후에는 한국에서 EU로 유출된 금액이 더 큼.

- 한국의 대EU 해외직접투자는 서유럽 중심, 서비스업 중심이었으나, 최근 폴란드, 헝가리 등 중동부 유럽과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

- 본 연구는 발효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한·EU FTA의 의의를 돌아보고, 한·EU FTA의 영향을 무역, 투자, 서비스, 대EU 진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, 이를 바탕으로 한·EU FTA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

## 2. 조사 및 분석 결과

### 1) 한·EU FTA가 한·EU 간 무역과 투자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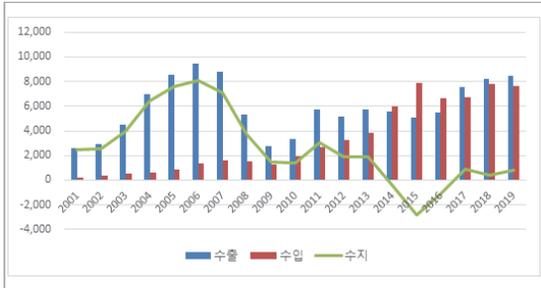
- ① 한·EU FTA는 중동부 유럽을 중심으로 대EU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고, 대EU 수입은 서유럽을 중심으로 증가한 가운데 중동부 유럽에서 수입하는 품목이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남.
- 일부 산업(전기전자, 기계, 자동차 등)에서는 FTA로 대EU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, 이는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, 해외 생산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.
- 수입품 다변화는 수입 가격을 낮추고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됨.
- 실증분석 결과로 볼 때, 한·EU FTA는 한국 기업의 대EU 진출전략을 다변화한 것으로 평가됨.
  - FTA 전에는 직접 수출 위주로 EU에 진출하였으나, FTA 이후 현지 생산 활성화
    -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중동부 유럽을 중심으로 생산기지를 확대함으로써 EU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.
  - 이러한 현지 진출은 한국 기업에 대한 EU 내 인지도를 높여서 시장점유율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됨.

### 2) 한·EU FTA 발효 10년간 양측의 경제가 더 깊게 연계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 제시

- ① 자동차 산업에서 산업 내 무역(intra-industry trade) 활성화
- 자동차 산업에서 FTA 이후 대EU 수입이 증가한 동시에 한국 기업의 EU 현지 생산이 활성화됨.
  - 그 결과 자동차부품, 엔진 등 중간재 수출이 증가하고 유럽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의 점유율도 높아짐.

그림 3. 한·EU 간 자동차(HS8703) 교역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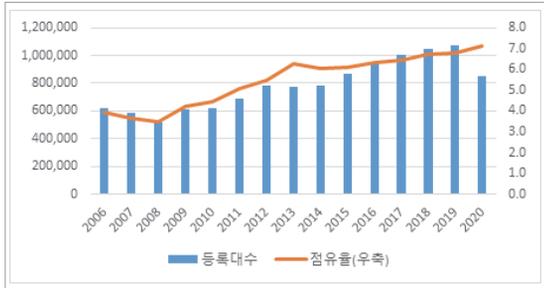
(단위: 백만 달러)



자료: UN Comtrade.

그림 4. 유럽 내 한국 자동차 브랜드 점유율 추이

(단위: 등록대수는 대, 점유율은 %)



자료: 유럽자동차공업협회(ACEA), "Consolidated Registrations - By Manufacturer".

② 기술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EU 내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 수요 급증에 한국이 대응

● 한국 전기자동차의 대EU 수출 확대는 EU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대규모로 추진 중인 ‘유럽 그린딜 (European Green Deal)’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됨.

● 특히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경우, EU의 자체 생산역량 부족을 한국이 보충

- 한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생산기업인 LG화학, 삼성SDI, SK이노베이션 등은 최근 EU 내 생산을 본격화하며 EU의 전기자동차 산업에 직접적으로 기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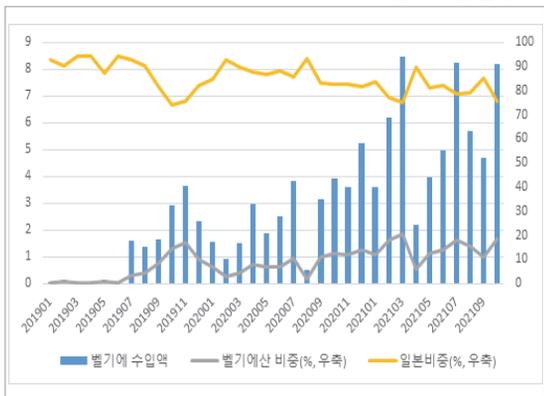
그림 5. 중동부 유럽의 한국 기업 전기차 배터리 공장



자료: Google Maps.

그림 6. 반도체 제조용 포토레지스트 수입 추이

(단위: 백만 달러, %)



자료: 한국무역통계진흥원 TRASS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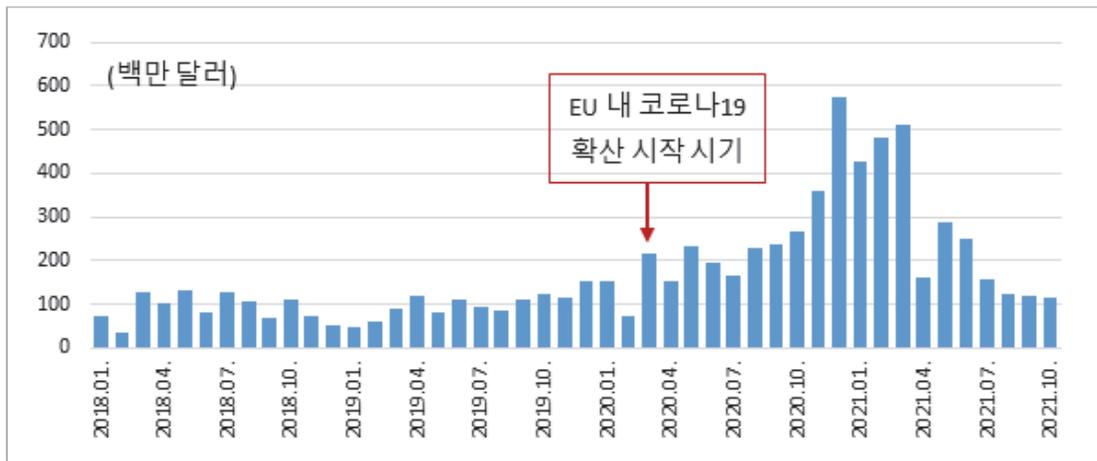
③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이 EU를 통해 공급망을 다변화

- 핵심 장비를 특정 국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상황을 EU로 빠르게 대체하여 완화

④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이후 필수적인 방역물품에 대한 EU 내 수요 급증에 한국의 수출이 발 빠르게 대응하여 EU의 방역에 기여

-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이후 의료용품 산업에서 한국의 대EU 수출 급증

그림 7. 한국의 대EU 의료용품 수출 추이



자료: KITA K-stat.

3) 한·EU FTA 이후 EU가 주요 제3국과 체결한 FTA를 분석하여 한·EU FTA 개정 요구 가능성이 높은 분야 제시

- EU-캐나다 간 ‘포괄적경제무역협정(CETA: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)’, EU-싱가포르 FTA, EU-일본 ‘경제동반자협정(EPA: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)’ 분석

① 파리협약 이행,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규범적인 요소가 강화될 가능성

-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‘ESG(Environment, Social, Governance) 경영’에 대한 각성이 고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, 한·EU FTA 또한 이러한 규범적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가능성

- ② EU가 투자자-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로 추진해온 ‘투자법원제도(ICS: Investment Court System)’ 도입 가능성
  - 한·EU FTA에 투자자-국가 간 분쟁해결 제도 등 투자보호 관련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한·EU FTA 협상 개시 시점에 투자보호 관련 협상 권한이 EU에 있지 않았기 때문
  - EU가 관련 권한을 갖게 된(리스본 조약 발효) 후 체결한 EU-캐나다 CETA, EU-베트남 FTA 등은 투자법원제도를 도입하였음.
- ③ 한·EU FTA 이행 과정에서 EU 측이 요구해온 원산지 관련 직접운송 요건의 변경, 수리 후 재반입 물품에 대한 과세조건 개정 등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
  - EU는 단일탁송화물(single consignment)을 기준으로 하는 직접운송 조항을 제3국에서 분할탁송이 가능한 추가가공금지(non-manipulation) 조항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음.
  - EU는 한국 항공기의 EU 역내수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·EU FTA 부속서 2-A에 ‘수리 후 재반입 물품(Good re-entered after repair)’ 조항을 신설하자고 제안하였음.
    - 현행 한·EU FTA에 따르면 원산지 규정을 미충족할 경우(예: 미국산)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반면, 한국이 미국, 칠레, 페루 등과 각각 체결한 FTA에는 수리 후 재반입한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를 불문하고 면세한다는 규정이 있음.
    - EU 측은 이로 인하여 한국 항공사들이 미국에 부품 수리를 맡길 수밖에 없고, EU뿐만 아니라 한국도 항공기 정비 시 경쟁이 저해되어 피해를 본다고 주장

### 3. 정책 제언

- 본 연구는 한국과 EU가 공히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, 신기술, 통상 갈등 등 중요한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·EU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
- ① 수소경제 분야 협력 강화
  - 한국과 EU 모두 수소경제 활성화를 추진 중
    - EU는 2020년 7월에 EU 수소전략을 발표하여 투자, 규제, 시장 형성, 연구개발 등의 분야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 중

- EU는 2018년 기준 2%에 못 미치는 수소 비중이 2050년에는 13~14%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, 2050년까지 역내에서 재생수소에 1,800억~4,700억 유로, 저탄소 화석연료 기반 수소에 30억~180억 유로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
- 한국정부 또한 2019년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하는 수소경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 중

- 양측의 공동 관심사를 토대로 수소경제 분야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면 양측이 별개로 연구개발을 하였을 때보다 더 좋은 연구성과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,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EU 간 경제협력도 더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.

## ② 데이터 규제 관련 협력 강화

-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주요국들은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, EU가 이러한 움직임에 앞장서고 있고, 한국 또한 디지털 전환에 관심이 큼.
  - 한·EU 간 데이터 교역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음.
- EU의 개인정보보호법인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(GDPR: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)에 따라, EU 역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동하는 것은 적정성 결정(adequacy decision)을 통과한 경우에만 허용됨.
  - 적정성 최종 결정을 받더라도 데이터 관리, 보관, 이용 등에 GDPR이 적용되므로 과징금 부과 위험
  - 이 위험이 대EU 전자상거래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
- 한국의 GDPR 적정성 결정에 공공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개인정보 이전도 포함된 만큼,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협력 유망
  - 주요국들은 혁신기업의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데이터 사용을 허용하는 추세

## ③ 스타트업 관련 협력 강화

- EU는 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스타트업의 EU 진출을 위한 포털을 운영 중이며, 관련 국제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고, 한국도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에 정책적 관심이 큼.
  - 특히 EU 집행위원회는 이미 미국, 인도, 중국을 포함한 스타트업 관련 국제협력을 수행 중이므로, 한국과 협력하는 것도 수월할 전망
  - EU는 경제 규모, 기술 수준, 인구 구성 등이 매우 다른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제도적으로는 EU 차원의 공통점이 있으므로 한국의 스타트업이 다양한 시도를 해보기에 적절함.

- 새로운 기술을 상품화하여 시장에 진출하는 데에는 규제와 행정절차가 큰 걸림돌이므로, 플랫폼을 통하여 양자 간 규제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  - 상기한 플랫폼을 통하여 한국 기업에 EU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  
-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한·EU 공동펀드 조성이 유망함.
  -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벤처캐피탈 활성화가 요구되나, 현재 EU와 한국의 벤처캐피탈 시장은 미숙한 상황
  -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상대 지역 진출을 지원하는 양자 공동펀드를 조성하여 벤처캐피탈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만함.
  
- ④ ‘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(Protocol on Cultural Cooperation)’에 따른 시청각물 공동제작 활성화
  
- 시청각 서비스(audio-visual services)는 한·EU FTA의 서비스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, 협정문의 일부인 ‘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’에서 시청각 서비스와 관련된 협력의 틀을 일부 갖추고 있음.
  
-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는 한국과 EU 회원국이 공동으로 제작한 시청각물은 양측에서 국내산으로 인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, 2010~19년 동안 한국과 EU가 공동 제작한 시청각물은 총 26편에 불과하여 부진하다는 평가
  -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홍보 부족과 EU 회원국의 참가 기준이 너무 높다는 점을 지적
  
- 최근 한국의 시청각물이 세계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, 시청각물 공동제작은 한국 문화 콘텐츠의 EU 진출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됨.
  - 또한 한국의 높은 경쟁력과 EU의 내용을 결합한 공동제작물로 제3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유망함.
  
- 이를 위하여, 기존에 공동제작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문제(홍보 부족, EU 회원국 참가 기준 등)를 우선 해결할 필요 **KIEP**